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의존용언 구문 연구*

-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를 대상으로 -

권 재 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하나인 할하 몽골어를 대상으로 의존용언 구문의 문법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의존용언 구문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두 언어의 언어유형론적 관련성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계통론적 관련성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음 문장 (1)은 한국어의 의존용언 구문이며, 문장 (2)는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이다. 문장 (1)의 한국어에서 '있-, 보-, 싶-' 등이 의존용언이고, 문장 (2)의 할하 몽골어에서 *bai-* '이다, 있다', *üz-* '보다' *gar-* '나다' 등이 의존용언이다.

- (1) a. 나는 책을 읽-고 있다.
b. 나는 책을 읽-어 보았다.
c. 나는 책을 읽-고 싶다.

- (2) a. Egč nom unš-ij bai-na.¹⁾
elder:sister book read-Conn be-NPast
'누나가 책을 읽고 있다.'
- b. Bi üüniig unš-ij üz-sen-güi.
I(Nom) this(Acc) read-Conn see-Perf-Neg
'나는 이것을 읽어 보지 않았다.'
- c. Egč nom unš-ij gar-na.
elder:sister book read-Conn get:out-NPast
'누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할하 몽골어 기술에 쓰인 약호는 다음과 같다 : Acc: accusative, Ass: associative, Caus: causative, Conn: connective, Dat: dative-locative, Gen: genitive, Hab: habitual, Inst: instrumental, Irrs: irrealis, Neg: negative, Nom: nominative, NPast: non-past, Pass: passive, Past: past, Perf: perfective, Refl: reflexive-possessive.

의존용언 구문은 다양한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통사 구성으로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용언 구문은 역사적으로 문법화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 준다. 또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는 언어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존용언 구문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둘 이상 언어를 대조하여 언어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제시하는 언어의 대조 연구는 한 개별언어만 관찰하였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여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얻은 각 개별언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언어유형론적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를 알타이제어와 대조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한국어와 계통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그들과의 언어유형론적인 관련성을 밝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계통론적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기반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의존용언 구문의 성격과 그것이 실현하는 문법 기능을 기술한다. 의존용언 구문을 우선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설정하고, 한국어의 의존용언 구문이 실현하는 문법 기능으로서 시제, 양상,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알타이제어 가운데 할하 몽골어를 대상으로 의존용언과 여기에 관여하는 내포어미를 기술하고, 각각의 문법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를 대조한다. 대조 대상은 의존용언, 관여하는 내포어미, 문법 기능, 문법 특성 등이다.

필자는 권재일(1998)에서 이미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의 특성을 제시한 있다. 또한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송재목(1998)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논문은 앞선 이 두 연구에 기댄 바 크다. 그리고 할하 몽골어 자료에 대한 판단은 토박이화자인 채령호를로 양(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2. 의존용언 구문의 성격

2.1. 의존용언 구문의 지위

문법 기술에서, 어떤 언어 형식의 자립성 여부는 문법 관계를 살피는 데에 의의있는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형태적 구성 A와 B가 통합하여 통사적 구성 X를 구성하는 $A + B = X$ 에서, A가 B를 수식·보완하는 구성일 때, B가 필수적으로 A를 요구하는 구성 X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A를 수의적으로 요구하는 구성 X가 있다. 이 경우에 A의 실현이 필수적인가 수의적인가가 B의 자립성 여부의 기준이 된다. 즉 A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에 B는 의존적인 언어 형식이며, A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에 B는 자립적인 언어 형식이다. 따라서 언어 형식의 자립성 여부의 기준은 'A의 실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느냐 수의적으로 요구하느냐'가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존용언은 동사구 내포문의 실현이 필수적인 용언이며, 자립용언은 이의 실현이 수의적

인 용언이다. 결국 용언은 서술 기능의 자립성에 따라 자립용언과 의존용언으로 나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권재일 1986 참조).

이렇게 볼 때 의존용언은 필수적으로 동사구 내포문의 도움을 받아 서술 기능을 수행하는 용언이라고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 (3) a. 철수는 옷을 버렸다.
b. 철수는 학교에 가 버렸다.

문장 (3a)의 ‘버리다’는 자립용언으로, (3b)의 ‘버리다’는 의존용언으로 각각 기능을 하고 있다. (3b)의 ‘버리다’는 ‘... 학교에 가(-아)’라는 동사구 내포문의 도움을 받아서 서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

어떤 문장이 자립-서술 기능이든 의존-서술 기능이든, 서술 기능을 두 번 이상 수행하는 구성을 복합문이라고 할 때(권재일 1985: 18), 동사구 내포문을 안고 있는 의존용언 구문은 복합문 구성이다. 즉, (4)와 같은 문장 구조로 분석되는 동사구 내포문 구성이다.

- (4) [s₀ NP [v_p S₁ V]]

문장 (5a)는 각각 (5b)와 같이 분석된다.

- (5) a.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가-도록 하였다.
b. S₁ ‘철수가 학교에 가-도록’
V ‘하-’

(5)의 ‘철수가 학교에 가-도록’은 상위문 서술어 ‘하다’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서술 기능의 보완이라는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기술하는 것이다(권재일 1985: 20~).

그러나 의존용언 구문을 모두 이러한 복합문 구성인 동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다. 다음 (6)의 문장을 보면 이들은 서술 기능을 둘 이상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하나의 서술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 (6) a. 철수는 벌써 학교에 가(=가-아) 버렸다.
b.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c. 철수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다.
d. 철수는 아직 학교에 가-지 않았다.
e. 빨리 학교에 가(=가-아) 보아라.

2) ‘버리다’는 문장 구성에 따라서 자립용언, 의존용언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두 기능, 즉 의존 기능, 자립 기능을 가진 용언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르다. (3a)에서는 원래의 의미 대로, (3b)에서는 [종결]의 의미로 쓰인다.

즉 (6)의 ‘가-아 버리-다’, ‘-고 싶-다’, ‘-고 있-다’, ‘-지 아니하-다’, ‘가-아 보-다’ 구성에서, 첫째 비록 자립 형식으로 보아지나 그 뜻으로 보면 앞의 자립용언에 대해 뒤의 의존용언이 매여 있고(허 응 1983:248), 둘째 (6a)와 같이 문장 전체의 시제법을 실현하기 위해 ‘-었-’이 ‘가(-아) 버리-’에 한번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구성체로 볼 수 있고, 셋째 (6e)와 같이 문장 전체의 명령법을 실현하기 위해 ‘-어라’가 ‘가(-아) 보-’에 한번 결합되어 있으므로 또한 하나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고, 넷째 대부분 의존용언 구문에서처럼 두 서술 기능의 주어가 같은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특징으로 보아 서술 기능을 둘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복합문 구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서술 기능으로 인식되어 형태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7)과 (8)의 의존용언 구문은 그렇지 않고 분명히 둘의 서술 기능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첫째 그 뜻으로 보면 앞의 자립용언에 대해 뒤의 의존용언이 매여 있지만, 둘째 (7b), (7c)에서 시제법을 실현하기 위해 ‘-었-’이 두 번 결합되어 있고, 셋째 두 서술 기능에 대해 주어가 각각 다르다. (7)에서 ‘하다’의 주어는 ‘나’로, ‘가다’의 주어는 ‘철수’로 나타나 있다.

- (7) a.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가-도록 했다.
 b.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갔-으면 했다.
 c.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갔-거니 했다.
- (8) a. 우리가 이기-게 / 이기-도록 했다.
 b. 우리가 철수가 이기-게 / 이기-도록 했다.
 c. 우리가 이기-게 / 이기-도록 되었다.

문장 (8a)에서는 ‘이기다’와 ‘하다’의 주어가 모두 ‘우리’이다. 그리고 (8b)에서는 ‘이기다’의 주어는 ‘철수’, ‘하다’의 주어는 ‘우리’이다. (8c)에서는 ‘이기다’의 주어는 ‘우리’이지만, ‘되다’의 주어는 ‘조건 혹은 상황’ 등으로 상정되어 해석된다 (권재일 1985: 110~111).

더욱 다음 (9)에서는 ‘놓다, 가다, 지다’ 등이 의존용언이기보다는 합성동사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 (9) 늘어놓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엮어지다, 흩어지다 ……

이들 합성동사가 기원적으로는 의존용언 구문에서 변화했겠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휘적 구성인 것이다. 이러한 합성동사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의존용언(-류)의 성격은, 1) 합성동사로 재구조화하여 어휘적 구성인 경우, 2)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 3) 통사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의존용언 구문은 역사적으로는 ‘3 > 2 > 1’의 단계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위에서 검토한 것 가운데 합성동사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면, 의존용언 구문은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 (10) a. 하나의 서술 기능으로 인식되는, 즉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
 b. 둘의 서술 기능으로 인식되는, 즉 통사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방안은, [1] 두 경우를 별개로 나누어 기술하거나, [2] 어느 한 경우로 일관되게 기술하거나 하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권재일 1985:21~22). 이 글에서는 언어 현상을 보다 타당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방안 가운데 의존용언 구문을 일괄적으로 통사적 구성으로, 즉 모두 둘의 서술 기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형태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복합문 구성인, 동사구 내포문을 안은 의존용언 구문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2. 의존용언 구문의 기능

의존용언 구문은 다양한 문법 기능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장 (11a)의 ‘-고 있-’은 [진행]의 양상을 실현하며, (11b)의 ‘어 보-’는 [시도]의 양태를, (11c)의 ‘-고 싶-’은 [소망]의 양태를 각각 실현하고 있다. 할하 몽골어에서 (12a)의 *-j bai-*는 [진행]의 양상을 (12b)의 *-j üz-*는 [시도]의 양태를, (12c)의 *-j gar-*는 [기동]의 양상을 실현하고 있다.

- (11) a. 나는 책을 읽-고 있다.
 b. 나는 책을 읽-어 보았다.
 c. 나는 책을 읽-고 싶다.

- (12) a. Egč nom unš-ij bai-na.
 elder:sister book read-Conn be-NPast
 ‘누나가 책을 읽고 있다.’
 b. Bi üüniig unš-ij üz-sen-güi.
 I(Nom) this(Acc) read-Conn see-Perf-Neg
 ‘나는 이것을 읽어 보지 않았다.’
 c. Egč nom unš-ij gar-na.
 elder:sister book read-Conn get:out-NPast
 ‘누나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2.3. 한국어 의존용언 구문의 기능

한국어에는 다양한 의존용언 구문이 있다. 그리고 많은 문법-의미 기능들이 의존용언 구문에 의해 실현된다. 양상,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이 그러하다(권재일 1986 및 1992 참조). 의존용언 구문이 실현하는 기능에 따라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1] 완료상

-어 있- / 버리- / 내- / 놓- / 두- / 치우-
-고 나- / 말-

- (13) a. 철수가 학교에 가-아 있다.
b. 철수는 이 일을 잊-어 버렸다.
c. 철수가 그 일을 결국 하-고 말았다.

[A-2] 진행상

-고 있-
-어 가- / 오-

- (14) a. 나는 책을 읽-고 있다.
b. 요즘 그 일은 잘 되-어 가느냐?

[A-3] 기동상

-게 되-

- (15) 철수가 책을 읽-게 되었다.

[A-4] 반복상

-고-는 하-

- (16) 철수는 이 책을 읽-고-는 하였다.

[B-1] 수혜 양태

-어 주- / 드리- / 바치-

- (17) a.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 철수는 나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2] 시도 양태

-어 보-

- (18) 나는 책을 읽-어 보았다.

[B-3] 추측 양태

-어 보이-

- (19) 그는 행복하-여 보인다.

[B-4] 허락 양태
-어도 되-

(20) 너는 가-아도 된다.

[B-5] 소망 양태
-고 싶-
-으면 싶- / 하-

(21) a. 나는 책을 읽-고 싶-다.
b. 나는 학교에 가-았-으면 한다.

[B-6] 의도 양태
-으려 하-
-고자 하-

(21) c. 나는 책을 읽-으려 한다.

[B-7] 의무 양태
-어야 하- / 되-

(21) d.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B-8] 강조 양태
-어 대- / 쌓- / 빠지-

(22) 아기가 울-어 댄다.

[C] 사동
-게 하- / 만들-
-도록 하- / 만들-

(23) 나는 철수가 책을 읽-게 한다.

[D] 피동
-어 지-

(24)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진다.

[E] 부정

-지 아니하- / 말- / 못하-

(25) 나는 책을 읽-지 않았다.

3.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 대조

3.1. 할하 몽골어의 성격

몽골제어는 공간적으로는 아시아대륙의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기록이 존재하는 시기로부터 7세기가 경과하였으므로 공시적, 통시적으로 단일한 언어일 수는 없다. 몽골제어는 12, 13세기의 군사원정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산된 채 오늘에 이르러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으므로 각 언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마련이며, 이 특징들이 몽골제어를 언어학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김방한 외 1986: 35~45). 학자마다 몽골제어에 대한 분류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의 대상인 할하 몽골어(Khalkha Mongolian)는 현재 몽골공화국(= 외몽고) 전역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일반적으로 동부몽골어군에 속한다.

3.2. 할하 몽골어 의존용언 구문의 기능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 역시 다양한 문법-의미 기능을 실현하는데, 주로 양상과 양태의 기능이다(권재일 1998 및 송재목 1998 참조).

[A-1] 완료상

-aad bai- (이다, 있다)

-j orxi- (버리다)

(26) a. Bat bos-ood bai-na.
 Bat stand-Conn be-NPast
 ‘바트가 서 있다.’

b. Bat tüüniig mart-aj orxi-son.
 Bat that(Acc) forget-Conn throw:away-Perf
 ‘바트는 그것을 잊어 버렸다.’

[A-2] 진행상

-j bai- (이다, 있다) / -j yav- (가다) / -j ir- (오다) / -j suu- (앉다)

- aad bai-* (이다, 있다)
 -*saar suu-* (앉다) / -*saar ir-* (오다)
 -*j/-aad ald-* (읽다)

- (27) a. Egč nom unš-ij bai-na.
 elder:sister book read-Conn be-NPast
 ‘누나가 책을 읽-고 있다.’
- b. Bat nom unš-aad bai-na.
 Bat book read-Conn be-NPast
 ‘바트는 책을 계속 읽었다.’
- c. Bat muzyei-d-ee sonin üzmer belegle-seer ir-sen.
 Bat museum-Dat-Refl interesting article donate-Conn come-Perf
 ‘바트는 박물관에 흥미로운 물품을 기부해 왔다.’
- d. Bid nar üüniig duusg-aj yav-na.
 we Pl this(Acc) finish-Conn go-NPast
 ‘우리는 이 책을 다 끝내 간다.’
- e. Bat namaig xülee-j suu-san.
 Bat I(Acc) wait-Conn sit-Perf
 ‘바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 f. Ter oxin uil-j ald-av.
 that girl cry-Conn lose-Past
 ‘그 소녀는 계속해서 울었다.’

[A-3] 기동상

- j gar-* (나다)
 -*x bol-* (되다)

- (28) a. Tuya genet inee-j gar-san.
 Tuya suddenly laugh-Conn get:out-Perf
 ‘토야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다.’
- b. Bat surguuli-d yav-ax bol-son
 Bat school-Dat go-Irrs become-Perf
 ‘바트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B-1] 수혜 양태

- j ög-* (주다)
 -*j/-aad av-* (가지다)

- (29) a. Bat Tuya-d angli-in tuxai xel-j ög-sön.
 Bat Tuya-Dat England-Gen about tell-Conn give-Perf
 ‘바트는 토야에게 영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 b. Manai-x ter xüü-g ürčil-j av-san.
 we(Gen)-Ass that child-Acc adopt-Conn take-Perf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B-2] 시도 양태

-j/-aad üz- (보다)

- (30) Bi üüniig unš-ij üz-sen-güi.
 I(Nom) this(Acc) read-Conn see-Perf-Neg
 ‘나는 이것을 읽어 보지 않았다.’

[B-3] 가능(능력) 양태

-j čad- (할 수 있다)

-j yad- (다하다)

- (31) a. Bi ene nom-iig unš-ij čad-na.
 I(Nom) this book-Acc read-Conn be:able-NPast
 ‘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 b. Bat biye-e bari-j yad-av.
 Bat body-Refl control-Conn be:unable-Past
 ‘바트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B-4] 허락 양태

-j bol- (되다)

- (32) a. Ta yav-j bol-no.
 you(Nom) go-Conn become-NPast
 ‘당신은 가도 된다.’

[B-5] 추측 양태

-j med- (알다)

- (33) a. Ter camd minii tuxai yari-j med-ne.
 he(Nom) you(Dat) I(Gen) about tell-Conn know-NPast
 ‘그가 아마 너에게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 b. Boroo or-j med-ne.
rain come-Conn know-NPast
'아미 비가 올 것이다.'

[B-6] 과거기회 양태

-n ald- (읽다)

- (34) a. Ter oxin uil-an ald-av.
that girl cry-Conn lose-Past
'그 소녀는 울 뻔 하였다.'
- b. Bi una-n ald-iaa.
I(Nom) fall-Conn lose-Past
'나는 떨어질 뻔 하였다.'

3.3.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 대조

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면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들을 대조하여 각각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3.1. 의존용언 대조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에서 대부분의 의존용언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어휘적인 본용언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의존용언으로 문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버리-'와 할하 몽골어의 *orxi-*는 본용언일 경우,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지만, 의존용언 구문에서는 완료상을 실현한다.

위에서 기술한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의 목록을 한국어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목록

a. 한국어와 공통된 의존용언

ald- (읽다), *av-* (가지다), *bai-* (있다), *bol-* (되다), *gar-* (나다),
ir- (오다), *yav-* (가다), *orxi-* (버리다), *ög-* (주다), *üz-* (보다)

b. 한국어에 없는 의존용언

med- (알다), *suu-* (앉다), *čad-* (할 수 있다), *yad-* (다하다)

3.3.2. 내포어미 대조

의존용언 구문에 관여하는, 동사구 내포문을 의존용언에 연결하는 내포어미는 두 언어 모두 다양하다. 한국어의 '-어, -고, -지, -게'와 할하 몽골어의 *-j, -aad, -n, -saar* 등이 대표적이다. 흔히 *-j*는 [미완료], *-aad*는 [완료], *-n*은 [공동], *-saar*는 [계

속]의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의 ‘-고, -어’는 할하 몽골어의 *-j, -aad*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들이 의존용언 구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한국어나 할하 몽골어 대부분의 경우, 내포어미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몇몇 내포어미는 독자적인 의미를 실현한다. ‘-어야’는 [의무], ‘-으려, -고자’는 [의도]를 나타낸다.

3.3.3. 문법 기능 대조

한국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은 양상,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을 실현하며,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은 양상, 양태를 실현한다.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완료], [진행], [기동]이며, 역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양태는 [시도], [수혜], [허락]이다. 이를 차례대로 대조해 보기로 한다.

(36) 완료상

- a. 철수가 학교에 가-아 있-다.
 b. Bat bos-ood bai-na.
 Bat stand-Conn be-NPast
 ‘바트가 서 있다.’

(37) 진행상

- a. 철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
 b. Boroo or-j bai-na.
 rain come-Conn be-NPast
 ‘비가 내리고 있다.’

(38) 기동상

- a. 철수가 책을 읽-게 되-었다.
 b. Tuya genet inee-j gar-san.
 Tuya suddenly laugh-Conn get:out-Perf
 ‘토야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다.’

(39) 시도 양태

- a. 나는 책을 읽-어 본다.
 b. Bi üüniig unš-ij üz-sen-güi.
 I(Nom) this(Acc) read-Conn see-Perf-Neg
 ‘나는 이것을 읽어 보지 않았다.’

(40) 수혜 양태

- a.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읽-어 준다.
 b. Manai-x ter xüü-g ürčil-j av-san.
 we(Gen)-Ass that child-Acc adopt-Conn take-Perf

‘우리 가족은 그 이야기를 양자로 삼았다.’

- c. Bat Tuya-d angli-in tuxai xel-j ög-sön.
 Bat Tuya-Dat England-Gen about tell-Conn give-Perf
 ‘바트는 토야에게 영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수혜 양태는 한국어에서는 ‘-어 주-’ 구문이라는 한 가지 유형에 의해 실현되지만, 할하 몽골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수혜자가 누구를 지시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주어를 지시하는 경우와 비-주어를 지시하는 경우이다. 각각 (40b)의 *-j av-* 구문은 주어가 수혜자인 경우이고, (40c)의 *-j ög-* 구문은 비주어가 수혜자인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와 다른, 할하 몽골어의 특징이 된다.

(41) 허락 양태

- a. 당신은 이제 가도 된다.
 b. Ta yav-j bol-no.
 you(Nom) go-Conn become-NPast
 ‘당신은 가도 된다.’

사동과 피동은 한국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인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할하 몽골어에서는 사동과 피동은 오직 파생적 방법으로만 실현된다. 따라서 할하 몽골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의존용언 구문으로도 사동과 피동을 실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42) 사동

- a. 나는 철수가 책을 읽-게 한다. (의존용언 구문)
 b. 나는 철수에게 책을 읽-히-는다. (파생적 방법)
 c. Bi Dorj-iig nom unš-uul-san.
 I(Nom) Dorj-Acc book read-Caus-Perf
 ‘나는 도로지에 책을 읽힌다.’

(43) 피동

- a.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진다. (의존용언 구문)
 b.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누-이-는다. (파생적 방법)
 c. Amid baigal' n' am'tan ba urgamal-aar xuvaa-gd-dag.
 living thing 3Poss animal and plant-Inst divide-Pass-Hab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뉜다.’

이와는 달리, 할하 몽골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으로 실현되는 기능이 한국어에서는 의존용언 구문으로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4a)의 *-an ald-* 구문으로 실현되는 ‘과거기회 양태’는 (44b)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 의존명사’ 구문에 의해 실

현된다.

(44) 과거기회 양태

- a. Ter oxin uil-an ald-av.
that girl cry-Conn lose-Past
'그 소녀는 울 뻔 하였다.'
- b. 그 소녀는 울 뻔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추측 양태, 가능 양태를 할하 몽골어에서는 의존용언 구문으로 실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고 '관형절 + 의존명사' 구문에 의해 실현한다. (45)는 추측 양태, (46), (47)은 가능 양태이다.

(45) 추측 양태

- a. Ter camd minii tuxai yari-j med-ne.
he(Nom) you(Dat) I(Gen) about tell-Conn know-NPast
'그가 아마 너에게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 b. 그는 아마 너에게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46) 가능 양태

- a. Bi ene nom-iig unš-ij čad-na.
I(Nom) this book-Acc read-Conn be:able-NPast
'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 b. 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47) 가능 양태

- a. Bat biye-e bari-j yad-av.
Bat body-Refl control-Conn be:unable-Past
'바트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 b. 철수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3.3.4. 그밖의 문법적 차이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에서, 시제어미는 오직 의존용언에만 결합된다. 대부분의 한국어 의존용언 구문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야, -으면' 등의 내포어미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내포문에도 시제어미가 실현될 수 있어, 할하 몽골어와는 대조적이다.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에서, 의존용언의 주어(= 상위문의 주어)는 본용언의 주어(= 하위문의 주어)와 같다. 대부분의 한국어 의존용언 구문에서도 그러하지만, 몇몇 의존용언 구문에서는 서로 다른 주어를 허용하고 있다. 사동을 실현하는 '-게 하-/만들-, -도록 하-/만들-' 구문을 비롯한 앞에서 든, 문장 (7)과 (8)에서는 서로 다른

주어가 나타난다.

두 언어간의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완료상의 의존용언 구문에서의 어휘 제약이다. 한국어의 ‘-어 있-’ 구문은 본용언으로 올 수 있는 용언이 상당히 제약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하는 할하 몽골어의 *-aad bai-* 구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용언이 다 올 수 있다. 오히려 ‘-어 있-’ 구문에서 본용언으로 올 수 있는 용언에 제약이 없었던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할하 몽골어가 비슷하다.

3.3.5. 문법화

일반적으로 문법 요소는 어휘 요소의 문법화로 생성될 수 있다. 문법화 과정은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의 시제어미 ‘-었-, -겠-’은 의존용언 구문 ‘-어 있-, -게 하였-’이 문법화한 결과이다. 이것은 두 언어 모두 의존용언 구문이 장차 문법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할하 몽골어의 많은 의존용언들도 어휘적 용언으로부터 문법화하였으며, 한국어 역시 그러하다.

4. 맺음 말

이 연구는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하나인 할하 몽골어를 대상으로 의존용언 구문의 문법 특징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의존용언 구문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조한 두 언어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할하 몽골어에서 대부분의 의존용언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어휘적인 본용언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의존용언으로 문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위에서 기술한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의 목록을 한국어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공통된 의존용언 : *ald-* (없다), *av-* (가지다), *bai-* (있다), *bol-* (되다), *gar-* (나다), *ir-* (오다), *yav-* (가다), *orxi-* (버리다), *ög-* (주다), *üz-* (보다). 한국어에 없는 의존용언 : *med-* (알다), *suu-* (앉다), *čad-* (할 수 있다), *yad-* (다하다). 의존용언 구문에 관여하는, 동사구 내포문을 의존용언에 연결하는 내포어미는 두 언어 모두 다양하다. 한국어의 ‘-어, -고, -지, -게’와 할하 몽골어의 *-j, -aad, -n, -saar*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의 ‘-고, -어’는 할하 몽골어의 *-j, -aad*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들이 의존용언 구문에서 가장 많이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은 양상, 양태, 사동, 피동, 부정 등을 실현하며, 할하 몽골어의 의존용언 구문은 양상, 양태를 실현한다.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완료, 진행, 기동이며, 역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양태는 시도, 수혜, 허락 등이다. 다만 수혜 양태는 한국어에서는 ‘-어 주-’ 구문이라는 한 가지 유형에 의해 실현되지만, 할하 몽골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수혜자가 누구를 지시하느냐’에 따라 주어를 지시하는 경우와 비-주어를 지시하는 경우이다.

사동과 피동은 한국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인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할하 몽골어에서는 사동과 피동은 오직 파생적 방법으로만 실현된다. 따라서 할하 몽골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의존용언 구문으로도 사동과 피동을 실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달리, 할하 몽골어에서 의존용언 구문으로 실현되는 기능이 한국어에서는 의존용언 구문으로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n ald-*로 실현되는 '과거기회 양태'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 의존명사' 구문에 의해 실현된다. 추측 양태, 가능 양태도 그러하다.

두 언어 간의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완료상의 의존용언 구문에서의 어휘 제약이다. 한국어의 '-어 잇-' 구문은 본용언으로 올 수 있는 용언이 상당히 제약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하는 할하 몽골어의 *-aad bai-* 구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용언이 다 올 수 있다. 오히려 '-어 잇-' 구문에서 본용언으로 올 수 있는 용언에 제약이 없었던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할하 몽골어가 비슷하다. 그리고 할하 몽골어의 많은 의존용언들도 어휘적 용언으로부터 문법화하였으며, 한국어 역시 그러하다.

참 고 문 헌

- 권재일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_____ 1986, 의존 동사의 문법적 성격, 「한글」 194, 한글학회.
 _____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_____ 1998,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알타이학보」 8, 한국알타이학회.
 김방한·정계문·김주원 1986,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류시중 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재복 1995, Progressives in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5, London: Department of Linguistic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_____ 1998, 할하 몽골어 보조동사구문에 대하여,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_____ 1999, 몽골어 동사 'ge-(말하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언어학」 24, 한국언어학회.
 허 응 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어제·오늘 —」, 샘문화사.
- Binnick, Robert I. 1979, *Modern Mongolian: A Transformational Syntax*,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Austin.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Givón, T. 1971 Historical syntax and synchronic morphology : An archaeologist's fieldtrip, *CLS 7*, Chicago Linguistic Society.
- Givón, T. 1979, From discourse to syntax : grammar as a processing strategy, In T. Givón, *Syntax and Semantics*, vol. 12, Academic Press, New York.
- Heine, B. 1993, *Auxiliaries : Cognitive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pper, P. & E.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ishig 1977, *Orčin üyeiin mongol bičigiin xelnii dadlagiin xel züi* [Practical Grammar of Modern Written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Ulan Bator.
- Street, John C. 1963, *Khalkha Structure*, Uralic and Altaic Series 24, Research Center in Anthropology, Folklore, and Linguistic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Traugott, E., & B. Heine eds. 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Abstract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Altaic Languages

Jae-il Kw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And we looked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the two languages.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ill shed light not only on the properties of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the two languages, but also on their genealogical and typological relationship.

Most of the auxiliaries in both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are versatile in that they can be used both as auxiliaries and main verbs. In their auxiliary use, the meaning of main verbs are bleached. For example, *pe-li-* in Korean and *or-xi-* in Khalkha Mongolian mean 'to throw away' when used as a main verb. However, as auxiliaries, they express completive aspect.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have many connective endings but only a few of them are used i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e*, *-ko*, *-ci*, *-key* in Korean and *-j*, *-aad*, *-n*, *-saar* in Khalkha Mongolian. The endings *-ko*, *-e* in Korean and their rough equivalents *-j*, *-aad* in Khalkha Mongolian are most frequently used i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both Korean and Khalkha Mongolian are used to express a variety of grammatical functions, such as aspect and modality. In both languages,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may express aspectual distinctions such as completive, progressive, and inchoative aspect. Modal distinctions such as the benefactive, trial, permission are also expressed through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While benefactive modality is expressed by the auxiliary verb construction *-e cwu-* '-Conn give' in Korean, Khalkha Mongolian distinguishes two types of benefactive construc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favor is conferred on the referent of the subject (*-j av-* '-Conn take'), or that of the non-subject (*-j ög-* '-Conn give').

Another inter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lexical restrictions

o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of completive aspect. The *-e iss-* 'to be, exist' construction in Korean imposes restrictions on verbs that can occur as main verbs, while the corresponding construction in Khalkha Mongolian, *-aad bai-* 'to be, exist', does not. The situation in Khalkha Mongolian is similar to that found in Middle Korean.

The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is observed in both languages. Many auxiliary verbs in Khalkha Mongolian developed through the grammaticalization of lexical verbs. It is likely that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both languages will undergo further grammaticalization in the future.

